

민족주의의 너비와 깊이



조 정 남 (한국민족연구원 원장)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이데올로기 물결이 넘쳐나고 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한때 화려한 색깔과 냄새를 풍기며 세상을 풍미하던 이데올로기가 이 땅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며 활개 치고 있다. 지난 세기 냉전 해체와 함께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그 생명력을 이어가면서 강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아닌 ‘이데올로기의 재생’이라고도 할 만한 이데올로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우리의 정치 현장을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 두뇌의 피조물이면서 인간 두뇌를 지배할 뿐 아니라, 인간 삶의 상황마저 그에 따라 설계하게 하는 교조”이면서 “인간과 인간의 삶이 어쩔 수 없이 그에 얽매여 있는 환상들”(Karl Marx)이기도 하고, “불순한 목적과 (정치적) 세력 대두의 가리개 구실”(David Apter)로도 이용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변화 가능성, 미완성이라는 특유의 성격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변화를 거듭하며 고정불변의 자태를 가진 것도, 그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마력과도 같은 것이 이데올로기다. 그러나 변화를 계속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체가 과거 냉전 시대에는 더 없는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양분하고, 수많은 마찰음을 내면서 인간 사회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왔다. 그것의 대결로 냉전체제가 유지되어 왔고, 그것의 쇠잔으로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그에 대처하는 탈냉전의 새 시대가 도래하기에 이르렀다. 탈냉전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었고, 탈이데올로기 시대를 말하는 것이기도 했다.

탈이념 상황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에도 유독 한반도의 상황만은 그런 외부 상황과는 무관한 듯 이데올로기 시대가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정치권의 핵심적 언어가 되어버린 이들 이데올로기들은 그것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학문적인 호기심과는 달리 특정 상대를 매도하거나 색칠하는 포장지로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도 특이하다. 하루도 빠짐없이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는 거친 합성들은 하나같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깃발로 채색된 광기를 폭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광기의 대부분은 ‘좌익’, ‘종북’, ‘용공’, ‘주체’ 등 짙은 색깔과 분명한 결정론적 내용을 가진 공산주의의 파생물들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왜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념적인 색깔이 하나같이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좌익적인 것으로 채색되어 있을까. 왜 공산주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퇴조와는 선을 그으면서 여전히 생동하는 이념체로 되살아나고 있는가. 20세기 후반 동구 소련권의 몰락으로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음에도 왜 여기서는 거세게 재소환 되고 있는가. 공산주의가 가지는 ‘前시대성’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에게 그것은 여전히 죽은 이념이 아니라, 많은 이들로부터 심정적인 지지를 받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실존적 이념의 하나이니 말이다.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생존 여건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더라도 한 것일까.

이렇듯 시대에 뒤진 이념이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이념이 가지는 민족주의와의 연계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 물론 이들의 재등장에는 과거 강압정권 아래서 탄압을 받아왔던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넓혀가고 있고, 그들을 탄압했던 정권들이 하나같이 ‘반공’을 주된 탄압의 명분으로 내세웠기에 이에 대한 반발로서의 ‘용공’에 대한 친화감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그리고 이에 더해 우리가 지상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분단국가라는 상황이 우리에게親북한적인 의식과 이념을 불식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상당하긴 하다.

그러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특히 이들 좌파적 이념과 민족주의와의 연계성이 가지는 비중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냉전 후의 새로운 시대 즉 ‘이데올로기 종언 시대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가 가지는 다양성과 변화에 대한 유연성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그만큼 민족주의가 가지는 무색무취하며 높은 융합성이 탈이념적인 무주공산의 허허한 시대 환경에 적합한 대안적 이념체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개연성은 아주 높다.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적 이념과 민족주의와의 연계는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주체사상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다. 주체사상이란 1960년대 후반 북한이 중국과 소련 간의 이른바 ‘중소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자기들의 살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4대 노선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그 후 북한의 통치노선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근래 들어 주체사상 강화 과정에서 북한은 한민족의 민족적 정통성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고, 바로 이러한 노력으로 북한체제를 민족적 정통성의 정당한 승계 집단이라고 하는 왜곡된 의식을 내외에 발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단군 성전’을 평양 근교에 대대적으로 조성하는가 하면, 김일성은 물론 그 일가의 가계를 항일 민족운동 집안으로 왜곡하기도 하면서 단군 신화를 비롯, 항일 민족주의 세력의 주류가 바로 북한 쪽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북한이 이처럼 한민족의 민족적 적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체제 수립과정에서 본보기로 삼아온 과거 소련의 탄생과 유지과정에서의 민족주의 차용에서 크게 자극받은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연계를 강하게 읽을 수 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소련은 혁명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이념으로 떠받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받아들이는 이중적인 이념 조작을 만들어 왔고 그것의 가장 간결한 공식화가 바로 ‘형식은 민족주의, 내용은 사회주의’라는 볼셰비키 혁명에서의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다. 전통적인 다민족국가 제정러시아 상황에서 그들의 혁명을 ‘민족주의’적이며 또 ‘사회주의’적이라는 이중적인 포장으로, ‘민족주의’를 빙자한 ‘反민족주의 혁명’, 즉 볼셰비키 혁명을 만들어 냈다. 바로 이 같은 소련혁명 과정에서의 이중적인 이념 조작을 북한에 끌어들이며 그들 체제의 취약한 정통성의 보강제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이런 논리 조작은 남한의 민족주의 세력에게도 강한 파급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부지불식간에 ‘민족주의적 북한’이라는 가면에 크게 매료되는 결과를 가져다준 것 또한 사실이다.

앞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할 때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이 범람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민족주의가 가지는 다면성과 그것의 여타 이념체와의 결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일 것이다. 과거 제정러시아에서 민족적 노예 상태 탈피를 위한 명분으로 일어난 러시아혁명이 또 다른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포한 소련 공산주의를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련의 해체에도 깊이 작용하고 있었음은 커다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념체도

민족주의를 내포하지 않은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의 확인으로까지 우리의 이해 수준을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무색무취한 민족주의가 가지는 이러한 너비와 깊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할 때 비로써 우리 사회의 친북, 용공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이 무리 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